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허성수  
기독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e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Seong-Soo Huh  
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296명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은  $3.48 \pm 0.33$ 점, 윤리적 가치관은  $3.50 \pm 0.37$ 점,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3.13 \pm 0.43$ 점이었으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학년( $F=3.21, p=.024$ ), 임상실습( $t=2.06, p=.040$ ), 간호윤리교육( $t=2.98, p=.00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도덕적 자아개념( $r=-.14, p=.017$ ) 및 윤리적 가치관( $r=-.42, p<.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가치관( $\beta=-.43, p<.001$ ), 간호윤리교육( $\beta=.14, p=.010$ ) 순이었으며 이들 예측요인들의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다( $F=42.09, p<.001$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296 nursing students from 2 nursing colleges in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2 to June 23, 2017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mean score of the moral self-concept was  $3.48 \pm 0.33$ , of ethical values was  $3.50 \pm 0.37$  and of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3.13 \pm 0.43$ . I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F=3.21, p=.024$ ), practice( $t=2.06, p=.040$ ) and nursing ethics education( $t=2.98, p=.003$ ).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oral self-concept( $r=-.14, p=.017$ ) and ethical values( $r=-.42, p<.001$ ). The significant predictors that influence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ethical values and nursing ethics education. The explanatory power was 22.5%. Based on the above results, additional studies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foster utilitarian values in order to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Keywords** : Life-Sustaining Treatment,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ttitude, Nursing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Seong-Soo, Huh(Christian College of Nursing)

email: gamsa1114@ccn.ac.kr

Received July 30,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September 2,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치유 불가능한 환자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만을 위한 무의미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에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대두 되고 있다[1]. 입원에서부터 연명치료의 시간이 길어지면 잠재적으로 비효율적인 치료, 의료자원의 손실, 환자 및 가족의 고통 등이 증가할 수 있다[2].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2016년 연명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4]. 보고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연명료 의향서'가 2000건이 넘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5,6].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의 상담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7,8].

윤리적 가치관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도리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9]. 임상 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요구되는 질적 간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10]. 이러한 딜레마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논란이 팽배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까

지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는 간호사들이 실무에서 자주 당면하는 윤리적 이슈로 언급되어 왔으나 국내 간호대학의 간호윤리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가 어떠한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립을 위해 간호교육현장과 실무현장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교육 과정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12].

한편, 도덕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도덕성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리적 가치관과 함께 의료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13].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에 근거하여 행동방향을 결정하며 실천하므로[14] 도덕적 자아개념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구성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14]. 이렇듯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은 임상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윤리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5]. 그러므로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은 생의 말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인식, 좋은 죽음 인식 등과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1,8,16,17],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거나 연명치료중단 태도와와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연명료결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연명치료중단 태도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과 연명치료중단 태도 정도와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

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위치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78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시 임의표집의 한계와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298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2부를 제외한 296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2.1.3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C 간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CCN-2017-4)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이 끝난 즉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

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1.4 연구도구

#### 1) 도덕적 자아개념

도덕적 자아개념은 Jung[18]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지' 중 '도덕적 자아개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6$ 이었다.

#### 2)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은 Lee[9]가 개발하고 Kwon[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뢰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도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된 8문항을 제외한 총 2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간생명영역 7문항, 대상자관계영역 6문항, 간호업무관계영역 5문항, 협동자관계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찬성한다' 1점부터 '반대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각 영역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론적 가치관의 문항들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5점에 가까울수록 의무론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 이었다.

#### 3) 연명치료중단 태도

연명치료중단 태도 측정은 Park[20]이 개발하고 Byun 등[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yun 등[21]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 2.1.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2.2 연구결과

###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86.1%였으며, 학년별 구성은 2학년이 29.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1.5세이었다. 종교는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0.3%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보통' 49.3%, '만족' 47%, '불만족' 3.7% 순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6)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41(13.9)
	Female	255(86.1)
Grade	First	80(27)
	Second	88(29.7)
	Third	57(19.3)
	Fourth	71(24)
Age(year)	≤ 23	259(87.5)
	24 ≤	37(12.5)
		21.5±4.1
Religion	Yes	147(49.7)
	No	149(50.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39(47.0)
	Moderate Dissatisfied	146(49.3) 11(3.7)
Practice	Yes	128(43.2)
	No	168(56.8)
Practice satisfaction (n=128)	Satisfied	61(47.7)
	Moderate	63(49.2)
	Dissatisfied	4(3.1)
Nursing ethics education	Yes	238(80.4)
	No	58(19.6)
Experienced terminal patient care	Yes	66(22.3)
	No	230(77.7)

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6.8%였으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실습 만족도는 '보통' 49.2%, '만족' 47.7%, '불만족' 3.1% 순이었다.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0.4%였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간호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7.7%로 나타났다[Table 1].

### 2.2.2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 료중단 태도 정도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8±0.33점이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50±0.37점이었으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 영역 별로는 협력자관계 영역이 3.94±0.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관계 영역 3.71±0.51점, 업무관계영역 3.58±0.51점, 인간생명 영역 2.88±0.62점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3±0.4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the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296)	
Variables	M±SD
Moral self-concept	3.48±0.33
Ethical values	3.50±0.37
Human life	2.88±0.62
Nurse-patient relationship	3.71±0.51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3.58±0.51
Nurse colleague relationship	3.94±0.56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3.13±0.43

### 2.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학년(F=3.21, p=.024), 임상실습(t=2.06, p=.040),간호윤리교육(t=2.98,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 사후검정을 한 결과, 4학년(3.20±0.35)이 1학년(3.01±0.42)보다 연명치료중단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y Participants's Characteristics

(N=296)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3.08±0.51	.83 (.405)
	Female	3.14±0.41	
Grade	First <sup>a</sup>	3.01±0.42	3.21 (.024) a<d
	Second <sup>b</sup>	3.14±0.49	
	Third <sup>c</sup>	3.17±0.41	
	Fourth <sup>d</sup>	3.20±0.35	
Age(year)	≤23	3.12±0.42	-1.36 (.176)
	24≤	3.23±0.50	
Religion	Yes	3.14±0.47	.49 (.625)
	No	3.12±0.38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07±0.45	2.22 (.110)
	Moderate	3.16±0.40	
	Dissatisfied	3.25±0.51	
Practice	Yes	3.19±0.37	2.06 (.040)
	No	3.08±0.46	
Practice satisfaction (n=128)	Satisfied	3.18±0.37	.090 (.914)
	Moderate	3.19±0.38	
	Dissatisfied	3.11±0.25	
Nursing ethics education	Yes	3.16±0.43	2.98 (.003)
	No	2.97±0.40	
Experienced terminal patient care	Yes	3.10±0.49	-6.59 (.510)
	No	3.14±0.40	

2.2.4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 $r=.29, p<.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적 자아개념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r=-.14, p=.017$ ), 윤리적 가치관과 연명치료중단 태도( $r=-.42, p<.0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Matrix among Measured Variable

(N=296)			
Variables	1	2	3
	r(p)	r(p)	r(p)
1 Moral self-concept	1		
2 Ethical values	.29 (.001)	1	
3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14 (.017)	-.42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296)							
Factors	B	SE	$\beta$	t	p	Adjusted R <sup>2</sup>	F(p)
(Constant)	4.84	0.20		24.05	<.001	.225	42.09 (.001)
Ethical values	-0.48	0.43	-.43	-8.22	<.001		
Nursing ethics education (yes)*	0.14	0.54	.14	2.61	.010		

\* Dummy variable

2.2.5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임상실습, 간호윤리교육을 Dummy 변수로 전환하고, 연명치료중단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검증에서는 Durbin-Watson 값은 1.988로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18-.934로 1.0이하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92-1.306으로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2.09, p<.001$ ),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요인은 윤리적 가치관( $\beta=-.43, p<.001$ ),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경험( $\beta=.14, p=.01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요인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다[Table 5].

2.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보건행정 전공 학생 3.51점[13]보다 약간 낮았으며, 같은 도구를 4점 만점으로 수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22]의 2.86점 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직종이나 연령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Jung[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임상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의 적응이라는 사회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도덕적 자아개념과 유사한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 지며 간

호대학생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4,15].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23]의 연구결과인 3.55점과 유사하였으며 Kim[24]의 연구결과 3.41점, 간호사가 대상인 Moon[8]의 연구결과 3.42점보다 약간 높게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선행연구[24-27]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대부분 평균 3.0점 이상으로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명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1,24].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별로는 협력자관계 3.94점, 대상자관계 3.71점, 업무관계 3.58점, 인간생명 영역은 2.88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력자관계 3.98점, 업무관계 3.60점, 대상자관계 3.24점, 인간생명 영역 2.82점 순으로 나타난 Kim[24]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업무관계와 대상자관계 영역이 바뀌었을 뿐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24-27]와 본 연구에서 협력자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의료와 관련된 종사자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환자를 돌보기 위한 원리·원칙 중심의 도덕적 의무감이 의무주의 입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간호대학생은 의료 협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윤리적 가치관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윤리적 가치관의 4가지 하위영역 모두 의무주의로 나타났으며 그중 인간생명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의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Lee 등[25] 다른 선행연구[8,24,26]에서도 같은 결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인간생명 영역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 등[25]의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문항이 가장 강하게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러한 결과는 대상자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의 우위를 누구에게 두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에게 인간생명 영역에서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따라서 인간생명과 관련된 딜레마 주제 및 사례를 적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간호전문인으로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3.1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23]의 연구 3.20점과 유사하였으며 Kim 등[1]의 연구 3.62점,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 등[16]의 연구결과 3.58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각 연구결과와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임상실습, 간호윤리교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학년보다 연명치료중단 태도가 높은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Cho[23]의 연구결과에서도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학년, 윤리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hoi 등[17]의 연구에서는 학년, 윤리교육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현 시점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17]. 본 연구에서 4학년이 1학년보다 연명치료중단 태도가 높은 긍정적 태도로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실제적으로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아직은 생명의료윤리, 환자권리 존중, 의사결정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16]. 그러므로 올바른 연명치료중단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 생명 및 간호윤리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4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연명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덕적 자아개념은 연명치료중단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 태도는 낮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으나,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 태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1,16]의 결과와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낮은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과 연명치료중단 태도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Cho[23]와 Moon[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의무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적용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무의미한 생명장치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간호의 본질을 바탕으로 어떻게 원칙을 적용할지 숙고하여야 한다[8].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의무주의 경향을 보였다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24]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간호교육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주장하는 의무주의적 의사결정은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공리적인 가치도 함께 논의되어질 수 있도록 윤리교육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측요인이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윤리교육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좋은 죽음인식[17], 윤리적 가치관[1],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16] 등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영향 요인이었다. Kim 등[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응답에 '확고하다'할수록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측정된 윤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의무주의적 가치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삶의 질에 대한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하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윤리교육이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무 현장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간호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Kim 등[1]은 간호대학에서 간호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료 윤리적 측면에서 간호학의 입장이나 간호 철학적 근거들이 부족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간호윤리교육이 저학년에서 한 학기 강의로 이루어져있고 실제 임상에서 도덕적 책임과 판단이 요구되는 고학년에서는 윤리교육에 관한 교과과정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5]. Kim 등[29]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45.9%가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응답하였으며, 생명의료윤리 정보 출처의 대부분을 학교수업(57.1%)에서 습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학년에서 고학년, 임상실습 전부터 임상실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심화된 간호윤리교육이 필요하며, 강의를 통한 간호윤리교육 차원을 넘어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도덕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며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1]. 연명치료중단 태도 정립과 간호사의 역할 확립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의료 정의,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법 제도 등 연명치료중단 관련 지식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과정, 윤리적 가치 등을 성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역할극, 팀 기반, 사례기반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교수법이 활용되고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갈등 규명, 윤리 원칙 적용, 대안 제기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호윤리 교과목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최소 2학점 이상의 전공필수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11,23,24].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업무수행 절차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연명치료중단 태도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3.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그에 따른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이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윤리교육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 중단 태도와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G. M. Kim, K. S. Sung, E. J. Kim,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Child Health Nurses Research*, Vol.23, No.3, pp.292-299,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292>
- [2] M. A. Hornor, J. P. Byrne, K. E. Engelhardt, A. B. Nathens, "Examining Racial Disparities in the Time to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rauma",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Vol.84, No.4, pp.590-597, 2018.  
DOI: <https://doi.org/10.1097/ta.0000000000001775>
- [3] M. L. Olsen, K. M. Swetz, P. S. Mueller, "Ethical Decision Making with End-of-Life Care: Palliative Sedation and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Mayo Clinic Proceedings*, Vol.85, No.10, pp.949-954, 2010.  
DOI: <https://doi.org/10.4065/mcp.2010.0201>
- [4] H. J. Joo, Legislation of Well-Dying Law[Internet],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Feb. 23, 2016,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8608>(accessed Nov. 20, 2017)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ment of Interim Results of a Life-Life-Sustaining Treatment Demonstration Project[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v. 28, 2017,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297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2971)(accessed Feb. 5, 2018)
- [6] H. K. Lee, H. S. Kang, "Attitude and Awarenes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6, No.3, pp.85-98, 2010.
- [7] C. Y. Chang, Y. S. Kim, "Attitude toward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Cancer Patient Families" *Ment Soc Work*, Vol.38, pp.5-30, 2011.
- [8] J. R. Moon, *Attitude on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Ethical Values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Pusan, Korea, 2013.
- [9]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20, No.2, pp.249-270, 1990.  
DOI: <https://doi.org/10.4040/jnas.1990.20.2.249>
- [10] J. H. Park, W. O. Kim, Y. S. Kim,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2, No.3, pp.251-260, 2009.  
DOI: <https://doi.org/10.35301/ksme.2009.12.3.251>
- [11] H. Y. Hwang,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0, No.3, pp.305-316, 2017.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7.20.3.305>
- [12] E. Y. Kim, E. H. Seo, E. Y. Ju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1-8,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1>
- [13] E. Y. Jung, *Association of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with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mong Students Major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2017.
- [14] M. E. Greipp, "Greipp's Model of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17, pp.734-738, 1992.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2.tb01972.x>
- [15] M. O. Kim, K. S. Kim,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lf-Concept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care", *Korean J Med Ethics*, Vol.18, No.4, pp.478-490, 2015.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5.18.4.478>
- [16] Y. M. Jang, E. K. Ahn,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Ethics Awareness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7, No.2, pp.53-61, 2019.  
DOI: <https://doi.org/10.22678/JIC.2019.17.053>
- [17] E. J. Choi, H.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75-28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18] W. S. Jung, *Tennessee Self-Concept Scale*, Seoul, Korean Testing Center, 1968.
- [19] Y. M. Kwon,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8, No.1, pp.17-28, 2002.
- [20] G. S. Park, *The Study of Consciousness of Euthanasia among Health Professionals*, Master's Thesis, Dankok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21] E. K. Byun, H. R. Choi, A. L. Choi, N. M. Kim, K. H. Hong, H. S. Kim,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9, No.1, pp.112-124, 2003.
- [22] S. Y. Suk, *A Study on the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Self-Concept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13.
- [23] Y. H. Cho,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0, pp.359-369, 2017.  
DOI: <http://doi.org/10.15207/JKCS.2017.8.10.359>
- [24] M. 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25] S. H. Lee, S. Y. Kim, J. A. Kim,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2, pp.145-155, 2007.
- [26] S. D. Kim,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5, pp.567-575,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5.567>
- [27] H. J. Jeong, H. J. Park, I. S. Jang,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ment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248-258,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48>
- [28] Mannix J. Wilkes L. Daly J., "Good ethics and moral standing: A qualitative study of aesthetic leadership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4, pp.1603-1610, 2015.  
DOI: <http://doi.org/10.1111/jocn.12761>
- [29] Y. H. Kim, Y. S. Yoo, O. H. Cho,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6, No.1, pp.1-9, 2013.  
DOI: <https://doi.org/10.14475/kihpc.2013.16.1.001>

허 성 수(Seong-Soo Huh)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 대학원 산업보건 간호학과 (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가톨릭간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재난간호